

現代中國語 否定型 縮略語 特徵 考察

崔 仲 植*

<目次>

I. 서론	V. 부정형 축약어 사용현황
II. 축약어의 정의 및 특징	설문조사 분석
III. 축약어의 구성원칙과 방식	VI. 결론
IV. 부정형 축약어 선정	

I. 서론

현대중국어에서 긍정형에 부정형태소(否定語素)가 결합된 “부정형태소+X”형식의 어휘들 중에 어떤 것은 단어(詞)로 존재하고 어떤 것은 구(短語)로 존재한다. 《現代漢語詞典》(2005)에서 부정형태소와 결합하는 긍정형 “X”가 2음절이나 그 이상일 때는 주로 구로 간주하여 수록되지 않거나 품사표시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단어로 볼 수 있는 경우는 “X”가 1음절이 대부분이었다.¹⁾ 그러나 아래의 예를 보자.

* 영진전문대 강사

1) 졸고(2009)에서 “부정형태소+X” 형식을 긍정단어의 반의관계를 나타내는 “부정형 반의어”라고 하였고 《現代漢語詞典》(2005)에서 부정형태소 “不, 非, 未, 無”와 결합된 2음절과 3음절 부정형 반의어는 총 283개로, 이 중 2음절 긍정단어와 결합한 3음절 부정형 반의어는 45개이고 1음절 긍정단어와 결합한 2음절 부정형 반의어는 138개로 나타남.

- (1) 甘心-不甘(=不甘心) 可以-不可(=不可以)
 允許-不許(=不允許) 符合-不符(=不符合)

위의 예 (1)의 좌우측의 단어들은 긍정단어(甘心, 允許, 符合, 可以)와 긍정단어의 일부분과 부정형태소가 결합되어(不甘, 不許, 不符, 不可) 반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는 원래는 2음절 긍정형 단어에 부정형태소가 결합된 괄호안의 3음절의 구형식(不甘心, 不允許, 不符合, 不可以)을 사용해 오다가 중국어 2음절화의 영향을 받아 음절수에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²⁾ 즉 긍정형 단어의 구성성분 중 선택된 하나의 구성성분과 부정형태소가 결합하여 2음절로 음절수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의미는 원래의 3음절 “부정형태소+X”와 동일한 하나의 단어로 되었다.

따라서 이렇게 본말의 음절수가 줄어들어도 그 의미가 변함이 없다는 것은 일종의 어휘의 축약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 출판된 중국어 축약어 사전에서는 이러한 부정형 축약어를³⁾ 수록하고 있지 않다.⁴⁾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긍정단어의 일부분과 부정형태소가 결합한 부정형 축약어의 존재 가능성의 전제하에 중국어 축약어의 특징과 일반적인 구성 원칙 및 구성 방식을 먼저 고찰해 보겠다. 그런 다음 3음절 “부정형태소+ab”형식에서 긍정단어 구성성분 중 하나의 구성성분을 추출

2) 王吉輝 <關於“肯定: 否定”反義組>, 天津師大學報 第3期, 1991, 75쪽 참조.

3) 본고에서 사용한 부정형 축약어는 “부정형태소+긍정단어”형식에서 긍정단어 구성성분 중 일부분과 본말과 동일한 부정형태소와 결합하여 형태상으로 축약되고 의미적으로 본말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또한 긍정단어 또는 구성성분과 결합하는 부정형태소는 현대중국어에서 사용빈도가 비교적 높은 「不, 無, 非, 未」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본고는 주로 3음절 “부정형태소+ab”형식의 본말이 “부정형태소+a”와 “부정형태소+b”형식의 2음절로 축약되는 경우만 살펴보겠음.

4) 본고에 사용된 축약어 사전은 王魁京·那須雅 主編 《現代漢語縮略語詞典》(濟魯書社 1986)과 袁暉·阮顯忠 主編 《現代漢語縮略語詞典》(語言出版社, 2002)임. 이같은 이유에 대해 필자는 “부정형태소+X”형식의 2음절단어가 고대중국어에 이미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고대중국어의 영향을 받아 현재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 새롭게 생성된 축약어로 볼 수 없어 축약어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있음.

하여 부정형태소와 결합한 2음절 형식에서 축약어 성립규칙에 부합되는 것을 부정형 축약어로 선정한 뒤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부정형 축약어 선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먼저 사전 수록어를 통해 부정형 축약어라고 간주될 수 있는 단어들을 추출한 뒤, 이를 다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부정형 축약어 사용 현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어 학습자들이 중국어 단어의 부정형태소 결합현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실제 중국어 사용에 있어 부정형 축약어를 활용함으로써 더욱더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중국어 부정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II. 축약어의 정의 및 특징

일반적으로 어휘의 축약이라는 것은 이미 고정화된 복잡한 단어나 구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주요성분을 뽑아내서 본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도록 간단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어에서 어휘의 축약현상을 나타낸 명칭은 “簡縮語”, “略語”, “簡稱”, “縮約語”, “縮略語”, “省語” 등이 혼용되고 있는데 이 중 “縮略語”와 “簡稱”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⁵⁾

따라서 축약어의 정의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縮略語”와 “簡稱”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제 학자들의 “縮略語”와 “簡稱”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서로 다른 두 개념으로 보는 경우, 동일하게 보는 경우, 한 개념이 다른 개념을 포함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이에 대해 손경옥(1998)은 축약어는 국명, 지명, 기관, 단체, 물품 등의 관용구(固定詞組) 명칭에 대한 간화형식인 “簡稱”과 이외에 관용구 및 비관용구(非固定詞組)의 간화형식인 “略語”가 합쳐진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는 독립된 서로 다른 두 간화형식인 “簡稱”과 “略語”가 결합된 통합체로 인식하고

5) 하민영 <현대한어 축약어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2010, 13쪽 참조.

있는 것이다. 또한 鍾嘉陵(1986)과 馬慶株(1988)도 “縮略語”는 “簡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縮略語”를 “簡稱”의 상위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簡稱”과 “縮略語” 모두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간단하게 줄여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단순히 명사형태의 줄임을 지칭하는 “簡稱”보다는 줄임과 간략화, 합칭(合稱)까지 포함하는 縮略語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를 사용하면 현대중국어 어휘의 축약현상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簡縮語”, “略語”, “簡稱”, “縮約語”, “省語”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인 縮略語를 현대중국어의 축약현상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하겠다. 이러한 현대중국어 축약어는 형식의 간결성과 정보의 함축성, 시대와 지역적 특성반영, 2음절 단어화, 구별성과 유형화 등의 특징을 지닌다.⁶⁾ 이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형식의 간결성과 정보의 함축성

축약어는 본말이 음절과 내용상 너무 길어 언어사용에 있어 종종 불편함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간결한 형식으로 바꾸어서 본말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경제원리가 작용하여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축약어의 간결성은 단순히 음절수를 줄이는 형식상의 간결화뿐만 아니라 그 의미면에서도 간결한 형식을 빌어 함축적이고 풍부하게 본말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數量多, 速度快, 質量好, 花費省”에서 4개의 중심구성성분 “多, 快, 好, 省”로 “多快好省”이라는 축약어를 만들어 본말의 12개 구성성분이 전달하려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 같은 특징은 축약어를 생성하여 널리 사용하게 되는 동력이자 축약어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6) 趙霞 <縮略語的詞化>, 天津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 15쪽 참조.

2. 시대와 지역적 특성 반영

언어는 사회가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시대적 변화와 지역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축약어 역시 그 당시 사회발전의 시대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먼저 시대적 특성은 각 시대에 따라 예전에 널리 사용되었던 축약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이와는 반대로 과거에 없던 새로운 축약어가 생성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政協(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나 “抗美援朝(抗擊美國侵略, 援助朝鮮人民)” 같은 축약어는 과거에 없었지만 1949년 이후 비로소 생겨난 것이다. 지역적인 특성은 축약어가 사용 장소와 사용범위의 제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彩色電視機”의 경우 대륙에서는 “彩電”이라는 축약어가 사용되지만 대만에서는 “彩視”라는 축약어가 사용된다. 또한 “現實狀況”도 대륙에서는 “現狀”을 사용하지만 대만에서는 “現狀”과 “現況”을 혼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축약어는 제약을 받지 않고 전국적으로 광범위 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北大”, “夏旦”, “語文” 등은 이미 모두 지명도가 높아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축약어이다.

3. 2음절 단어화

중국어 단어가 단음절에서 다음절로 변화하는 것은 중국어 어휘발전의 일반적인 추세이고 다음절중 2음절이 주를 이룬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치된 “한어수평고시(HSK)”에서 만든 《漢語水平語彙與漢字等級大綱》에 수록된 갑, 을, 병, 정 4개 등급의 8,822개의 단어 중 2음절이 6,077개로 전체의 69%를 차지해 현대중국어에서 2음절 단어가 우세함을 알 수 있다.⁷⁾ 축약어의 경우에도 중국어 어휘의 2음절화 경향이 그대로 반영되어 다음절의 본말이 2음절로 축약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축약

7) 최윤정 <중국어 2음절 합성어의 속성>,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7, 7쪽 참조.

어의 2음절화 특징은 《現代漢語縮略語詞典》(語言出版社, 2002)에 수록된 전체 7,904개의 축약어 중 2음절 축약어가 4,780개로 60.48%를 차지하고 있고, 《現代漢語縮略語詞典》(濟魯書社, 1986)에서 수록된 729개의 축약어 중 2음절 축약어가 530개로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특히 축약어의 2음절 단어화는 다른 언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중국어만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축약어의 특성이기도 하다.⁸⁾

4. 구별성과 유형화

중국어 축약어는 독특한 구별성과 유형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大學”와 “學院”은 모두 “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을 구분하는 구성성분은 “大”와 “院”이다. 이로 인해 중국 내 “大學”의 축약어에는 대부분 “大”라는 구성성분을 사용하고 중국 내 “學院”은 “院”이라는 구성성분을 사용하여 유형화 시킨다. 그러나 만약 유형화와 구별성이 서로 충돌하면 일반적으로 구별성이 우선된다. 예를 들어 “南大”라는 축약어를 사용하면 “南開大學”로 이해할 수 있고 “南京大學”로도 이해할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南開大學”는 “南開”로 “南京大學”는 “南大”라는 축약어를 사용한다.

Ⅲ. 축약어의 구성 원칙과 방식

축약어가 본말을 대신해서 사용되어 질 때는 보통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규칙이 있다. 다시 말해 본말과 축약어는 형태상, 의미상에서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고, 대중이 아무런 혼동 없이 본말을 대신하여 축약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축약어의 구성 원칙은 형식의 간략성, 의미의 명확성, 사용의 단일성, 사회적 약속성 4가지로 나뉜

8) 趙霞 《縮略語的詞化》, 天津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 22쪽 참조.

수 있다.

첫 번째, 형식의 간략성은 본말의 길고 복잡한 형식 중 어느 한 부분을 취하거나 본말과 연관성이 있는 숫자를 대체하여 형식을 줄인 것을 말한다. 본말에 없는 성분을 취하여 그 의미를 나타낸다면 그것은 축약어라 할 수 없는 것이다.⁹⁾

두 번째, 의미의 명확성은 내용적인 면에서 지켜져야 하는 원칙으로 형식의 간략성과 더불어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본말을 축약 후에도 원래 의미를 충분하게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단어의 의미와 중복되거나 혼란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北京大學”에서 구성성분을 추출하여 “北大”로 축약하고 “清華大學”에서 어절을 생략하여 “清華”로 축약한다. 이는 의미의 명확성 원칙에 의해 축약을 할 때 어떤 경우는 추출방식을 사용하고, 어떤 경우는 생략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 사용의 단일성은 하나의 축약어가 본말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본말의 형식을 간단히 줄여서 축약어를 만들지만 이러한 축약어가 또 다른 의미를 지니는 同形異義 현상이 생겨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본말에 대해서 다수의 축약어가 생기기도 하고 하나의 축약어에 대해 몇 개의 본말이 존재하기도 한다.

(2) 家獸牧畜 - 家畜 - 禽牧

(3) 第二次世界大戰 - 二戰 - 二世戰

위와 같은 축약어는 언어사용의 편리함에 의해 생성된 축약어가 오히려 불편과 혼란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사회적 약속성은 하나의 새로운 단어의 생성은 당연히 언어사용자들의 인정을 받아서 고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습관적인 사용 성향이 강한 언어가 축약어로 자리 잡고 그렇지

9) “電子計算機-電腦”, “山東-魯”, “獲取冠軍-折桂” 등이 이에 속함.

않은 것은 자연히 도태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郵政編碼”는 “郵編”과 “郵碼”라는 축약어가 동시에 존재하여 사용되다가 현재 사용빈도가 비교적 높은 “郵編”가 사용되고 “郵碼”는 도태되어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회적 약속성은 축약어뿐만 아니라 모든 어휘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의 일반적 특성으로 이러한 규칙을 고려하지 않고 생겨나는 축약어들은 쉽게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들은 축약어가 되기 위한 일반적인 규칙이다. 그러면 이러한 규칙을 따르는 중국어 축약어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중국어 어휘는 2음절, 3음절, 4음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축약어의 구성방법에 있어서도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축약대상 어휘의 음절수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축약결합(緊縮)과 생략(減縮), 공통성분선택요약(數括)의 방식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다.¹⁰⁾ 이러한 축약방식에 따라 중국어 축약어는 아래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 緊縮語 : 본말 중 의미가 다른 단어 또는 구에서 각각 한 구성성분을 추출하여 결합.

ex) 調查研究 - 調研, 魯迅藝術學院-魯藝

나. 減縮語 : 본말 중의 단어 또는 구에서 한 성분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생략.

ex) 清華大學-清華, 中國人民解放軍-解放軍

다. 數括語 : 본말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나열되는 병렬식 구조에서 본말 중 공통부분을 선택하고 병렬단어의 갯수를 나타내는 숫자와 결합.

ex) 講學習, 講政治, 講正氣-三講, 有理解, 有道德, 有文化, 有紀律-四有

두 단락 이상으로 구성된 “AB+CD”형식의 축약대상어 중 각 단락 중

10) 김애영·김현철·소은희·심소희 역 《현대중국어의이해(現代漢語)》, 차이나하우스, 2007, 210-211쪽 참조.

하나의 구성성분만 선택·결합하여 형성된 “AC, BD, BC, AD” 등이 축약 결합(緊縮)방식을 사용한 축약어이고, 단락에 관계없이 각 단락에서 한 가지 이상의 구성성분을 탈락시켜 형성된 “A, B, C, D, AB, CD” 등이 생략(減縮)방식을 사용한 축약어이다. 이러한 축약과정에서 어떤 구성성분을 선택하고 어떤 구성성분을 탈락시켜야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축약 후에도 그 축약대상어의 의미를 그대로 표현할 수는 있는가의 의미적 변별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즉 축약대상어를 축약한 뒤에도 언어사용자가 보편적으로 다른 단어와 혼동이 되지 않고 그 축약대상어를 바로 연상할 수 있는 주요 구성성분이 선택되어 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술한 기본원칙은 주로 의미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인데, 이를 모든 축약어에 적용하여 축약과정에서 구성성분의 선택과 생략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축약어 구성성분의 선택과 생략에 영향을 주는 주요 규칙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축약어 구성성분 선택, 생략, 통합의 원칙은 부정형 축약어 형성을 위해 부정형태소와 결합하는 주요 구성성분 선택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를 아래의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겠다.

1. 의미적 연관성 및 구별성 최적화의 원칙

축약을 위해 본말의 한 구성성분 중 어떤 구성성분이 최종적으로 선택되는지는 본말과의 의미상 연관도에 따라 결정된다. 즉 본말에서 나누질 수 있는 의미단락 중의 구성성분 중 이를 선택하여 축약 후에도 본말의 의미와 가장 연관도가 높아야 한다. 또한 축약 후에도 언어사용자들이 다른 어휘와 명확히 구별되어 바로 본말의 의미를 이해 할 수 있는 구성성분이 선택되어 진다. 다시 말해 본말의 의미를 가장 잘 보존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본말을 바로 연상할 수 있는 대표성분이 선택되어 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표성분 선택과 생략은 어휘내부의 의미체계특징을 분석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어휘의미체계는 변별적 자질특성을 나타내는 성분인 “특정대상개념(義象)”과 잉여적 자질특성을 나타내는 성분인 “상위종류개념(義類)”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축약과정에서는 특정대상개념이 생략되고 상위종류개념이 선택된다.¹¹⁾ 이를 “清華大學”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다. 우선 “清華大學”의 의미체계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義象(특정대상개념)	義類(상위종류개념)	축약형식
清華	大學	清華

위의 표에서 보듯이 상위종류개념에 속하는 “大學”가 생략되고 특정대상개념에 속하는 “清華”는 남겨져 “清華大學”의 축약어가 “清華”가 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의미체계에 속하는 “北京大學”의 경우에는 이외는 상황이 좀 다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北	京	大	學
義象(특정대상개념)		義類(상위종류개념)	
義象 (특정대상개념)	義類 (상위종류개념)	義象 (특정대상개념)	義類 (상위종류개념)

위에서 “北京”은 특정대상개념에 속하고 “大學”은 상위종류개념에 속한다. 이에 “北京”을 선택하여 축약어로 삼는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대학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냥 지명을 나타내는지 혼란을 주게 된다. 따라서 2차 의미체계분석이 필요한데 “北”와 “大”는 특정대상개념에 속하고 “京”과 “學”은 상위종류개념에 속하여 각각의 특정대상개념을 선택하여 “北大”가 “北京大學”의 축약어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의미체계분석법을 활용한다면

11) 徐通鏞 《語言論—語義型語言的結構原理和研究方法》，東北師範大學出版社，1997，15쪽 참조.

축약어의 의미적 연관성과 구별성을 효율적으로 최적화 시킬 수 있다. 실제 《現代漢語縮略語詞典》(濟魯書社, 1986)에 수록된 740개 축약어 중 2음절 축약어는 538개이며 이 중 상위종류개념이 생략되고 특정대상개념이 선택되어 축약어가 된 것은 419개로 78%에 달한다.¹²⁾ 따라서 이러한 의미적 연관성 및 구별성의 최적화 원칙은 축약어 생성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고 아래의 모든 구성성분 선택 원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어법기능상 중심어 선택의 원칙

의미상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 본말 어휘가 어법기능상 한정어와 중심어로 구성된 수식(偏正)구조이면 일반적으로 한정어 부분이 생략되고 중심어의 부분의 단락이나 구성성분이 선택되어 진다. 아래의 예를 보자.

- (4) 北(한정어)+京(중심어) - 京
 電(한정어)+氷箱(중심어) - 氷箱
 經濟(한정어)+特區(중심어) - 特區

예(4)에서 보면 “北”, “電”, “經濟”의 한정어 부분이 생략되고 “京”, “氷箱”, “特區”의 중심어 부분이 선택되어 축약어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모든 수식구조의 중심어가 축약어나 축약어의 구성성분으로 선택되어 지는 것이 아니다. 보통 총칭을 나타내는 중심어는 축약어의 구성성분으로 선택되지거나 축약어가 될 수 없다.

- (5) 電工(한정어)+學(중심어) - 電工
 (6) 夏旦(한정어)+大學(중심어) - 夏旦

12) 田贊宗·肖九根 <漢語縮略語的構成方式及縮略機制>, 《西南師範大學學報》第39卷, 2006, 40쪽 참조.

(7) 交通(한정어)+大學(중심어) - 交大/交通(?)

위는 예는 모두 수식구조로 구성된 어휘이다. 예(5), (6)은 중심어 부분이 생략되고 한정어 부분이 선택되어 “電工”, “廈門”이 본말의 축약어가 되었다. 이는 중심어 부분인 “學”이나 “大學”는 어떤 사물의 총칭을 나타내기 때문에 만약 한정어 부분이 생략되어 축약어로 쓰이게 된다면 언어 사용자가 본말의 의미를 바로 연상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예(7)은 본말은 비록 예(6)와 같이 수식구조로 되어 있으나 중심어인 “大學”가 생략된 “交通”은 축약어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특정 언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交通”을 축약어로 쓴다면 이것이 대학교를 나타내는 명칭인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단락의 첫 번째 구성성분을 선택·결합하여 “交大”가 본말의 축약어로 되는 것이다.¹³⁾ 이를 통해 중심어 선택 원칙은 상술한 바와 같이 먼저 본말과의 의미적 연관성과 구별성 원칙이 우선됨을 알 수 있다.

3. 첫 번째 음절 선택 원칙

중심어와 한정어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본말의 첫 번째 음절이 선택되어 진다. 예를 들어 “的士”는 “的”으로, “巴士”는 “巴”로 축약되어 사용된다. 이 같은 첫 번째 음절 선택 원칙은 단락이 나뉘지 않는 하나의 단어에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의미상 두 단락이상으로 나뉘지는 3음절, 4음절 본말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경향을

13) 중국어에서 “XX大學”의 축약어는 “廈門(廈門大學)”, “南開(南開大學)”처럼 한정어가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고, 지역, 전공, 학교의 특성 등에 따라 앞부분의 첫 번째 구성성분과 대학교를 나타내는 뒷부분의 첫 번째 구성성분 “大”가 선택되어 결합된다. 예를 들어 지역의 구분에 따라 “上大(上海大學), 遼大(遼寧大學), 武大(武漢大學)” 등이 있고 전공에 따라 “農大(農業大學), 醫大(醫科大學), 師大(師範大學)” 등이 있고, 학교특성에 따라 “函大(函授大學), 職大(職業大學), 夜大(夜間大學)” 등의 축약어가 있다.

보인다. 袁輝·阮顯忠 主編 《現代漢語縮約語詞典》(2002)에 수록된 축약어 중 “AB+CD”방식으로 구성된 4음절 본말이 2음절로 축약될 때, 그 구성성분의 선택 유형을 살펴보면 AC>AD>BC>BD>AB>CD순으로 각 단락의 첫 번째 음절이 선택된 AC형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¹⁴⁾

또한 王魁京·那須雅 主編 《現代漢語縮略語詞典》(1996)에서 “A+BC”, “AB+C”로 구성된 3음절 본말이 2음절로 축약될 때 2음절 부분의 구성성분 선택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음절이 선택된 경우는 총125개 축약어 중 74개(59%), 두 번째 음절이 선택된 경우는 51개(41%)로 여전히 첫 번째 음절이 선택되어 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⁵⁾ 따라서 축약어의 구성성분 선택 있어 중심어 선택 원칙이나 본말과의 연관성과 구별성 최적화 원칙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첫 번째 음절이 선택되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4) 사전에 수록된 총 7,904개 축약어 중 구성성분 추출방식으로 이루어진 2음절 축약어는 2,727개이고 추출식 유형 및 이에 따른 축약어수와 비율은 아래와 같다. 하민영 <현대한어 축약어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2010, 38쪽 참조.
 가. AB식: 抗探工程: 抗探(저항력 조사 공정), 參考消息: 參考(소식을 참고하다)
 나. AC식: 調查研究: 調研(조사 연구), 南京大學: 南大(남경대학)
 다. AD식: 交通銀行: 交行(교통은행), 泰山北門: 泰門(제일인자)
 라. BC식: 四川大學: 川大(사천대학), 人民警察: 民警(인민경찰)
 마. BD식: 電影電視: 影視(영화와 TV), 電影明星: 影星(유명 영화배우)
 바. CD식: 大陸冰蓋: 冰蓋(대륙의 빙하), 病灶鈣化: 鈣化(석회화하다)

추출유형	AB	AC	AD	BC	BD	CD	합계
개수(개)	46	1,563	658	245	193	22	2,727
비율(%)	1.69	57.32	24.13	8.98	7.08	0.81	100

15) 3음절로 구성된 본말과 축약어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 가. A+BC 구조
 AB식: 創先(創+進先), 高頻(高+頻率)
 AC식: 高位(高+職位), 男生(男+學生)
 나. AB+C 구조
 AC식: 保單(保+險單), 酬金(酬勞+金)
 BC식: 電廠(發電+廠), 港幣(香港+幣)

4. 동일 구성성분 선택 원칙

본말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나열되는 병렬식 구조에서 각 단어 중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성성분을 선택하여 축약어를 구성한다. 이러한 동일 구성성분은 동일성분 병합방식과 숫자식 병합방식의 축약어에서 구성성분으로 선택되어지는데 아래의 예를 보자.

(8) 中年, 老年 - 中老年

(9) 博物館, 圖書館, 文化館 - 三館

(10) 京劇, 昆劇 - 京昆

예(8)은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구성성분 “年”을 중복하여 쓰지 않고 병합된 뒤 나머지 구성성분 “中”, “老” 뒤에 붙여 사용한 경우이고, 예(9)는 병렬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구성성분 “館”에 그 병렬단어 개수를 나타내는 숫자와 결합한 경우이다. 예(10)은 “京劇, 昆劇”중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劇”가 생략되어 “京昆”이라는 축약어가 된 것인데 이를 통해 축약어 구성에 있어 모든 동일 구성성분이 선택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략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부정형 축약어 선정

부정형 축약어 선정을 위하여 우선 《新華反義詞詞典》에서 긍정단어의 반의어로 수록되어 있는 「不, 無, 非, 未」와 결합한 2음절, 3음절 부정형 반의어를 조사하였다. 이 중 긍정단어 또는 부정형 반의어가 《現代漢語詞典》(2005)에서는 수록되지 않거나 단어로 보지 않고 긍정단어와 부정형 반의어의 품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일단 제외했다. 그런 다음 이들의 긍정형 단어의 두 개의 구성성분 중 하나가 본말과 동일한 부정형태소와

결합하고 3음절 “n(부정형태소)+ab(2음절 긍정형 단어)” 형식이 존재하는 “na”와 “nb”형식의 2음절 어휘들을 추출하였다.¹⁶⁾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na(n+ab)식

不安(不安定) 不必(不必須) 不端(不端正) 不服(不服氣) 不符(不符合)
 不甘(不甘心) 不公(不公道) 不顧(不顧忌) 不和(不和諧) 不吉(不吉利)
 不拘(不拘泥) 不可(不可以) 不靈(不靈驗) 不滿(不滿意) 不确(不确切)
 不忍(不忍耐) 不善(不善于) 不舍(不舍得) 不爽(不爽快) 不妥(不妥當)
 不幸(不幸運) 不願(不願意) 不振(不振奮) 不周(不周到)

2. nb(n+ab)식

不便(不方便) 不當(不恰當) 不泛(不缺乏) 不凡(不平凡) 不法(不合法)
 不合(不符合) 不解(不理解) 不快(不愉快) 不愧(不慚愧) 不配(不般配)
 不平(不公平) 不力(不得力) 不巧(不湊巧) 不同(不相同) 不朽(不腐朽)
 不祥(不吉祥) 不興(不時興) 不許(不允許) 无私(無自私) 无效(無有效)
 無疑(無可疑)

위의 “부정형태소+X”형식은 하나의 부정형태소가 긍정형 단어의 구성 성분인 “a”, “b”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합한 “부정형태소+a”와 “부정형태소+b”형식이다. 이는 본말이라고 볼 수 있는 3음절 “n+ab”에서 부정형태소가 “ab”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형태적으로 2음절로 줄어들었다. 이같이 2음절이 된 후에도 3음절 본말과 그 의미가 동일한데, 이는 본말의 구성성

16) “n”은 부정형태소를 나타내고 “ab”는 1음절 구성성분인 “a”와 “b”로 구성된 긍정형 단어를 표시한다. 졸고(2009)에 따르면 긍정형과 부정형 반의어의 구성유형을 「na-ab」식, 「nb-ab」식, 「nc-ab」식, 「na-nb」식, 「nab-ab」식, 「nab-cab」식, 「nab-cnd」식 등 7가지로 나누었는데, 이 중 「na-ab」식, 「nb-ab」식을 축약형식으로 보았다. 또한 「na-ab」식, 「nb-ab」식의 어휘 중에서 축약 전 본말이라고 보는 “n+ab” 어휘가 北京大學語言學研究中心에서 개발한 現代漢語語料庫(http://ccl.pku.edu.cn:8080/ccl_corpusindexjsp?dir=xiandai)에 존재하지 않거나 그 용례가 1개 이하인 것은 제외하였음.

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정형태소와 결합한 축약결합(緊縮)방식의 2음절 축약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단어쌍 중 하나의 부정형태소가 구성성분 “a”와도 결합할 수 있고 “b”와 결합해도 본말의 의미와 동일한 “不₁符合(不₁符, 不₁合)” 같은 단어도 존재한다.

그러면 과연 “不₁符”와 “不₁合”중 어느 것이 “不₁符合”의 축약어인지는 사전을 통한 조사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전에서 조사된 부정형 축약어로 볼 수 있는 위의 단어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언어생활에서도 부정형 축약어 구성성분 “a”와 “b”의 선택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설문조사를 통해 증명해 보겠다.

V. 부정형 축약어 사용현황 설문조사 분석

사전 수록어 조사를 통해 3음절 “n+ab”형식이 축약되었다고 보는 2음절 “부정형태소+a”, “부정형태소+b” 형식의 단어가 실제언어생활에서 본말의 축약어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중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분석해 보겠다.

1. 조사방법 및 목적

본 조사는 대구에 유학중인 중국인 남녀 대학생 4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방법은 3음절 “n+ab”이 사용된 예문을 주고 긍정 단어 중 첫 번째 구성성분을 선택한 “na”와 두 번째 구성성분을 선택한 “nb”가 대체되어 사용될 수 있는 경우와 사용 될 수 없는 경우를 표시하게 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예문은 北京大學語言學研究中心에서 개발한 現代漢語語料庫에서 발췌하였다.¹⁷⁾ 또한 “na”와 “nb”가 모두 가능한 경우와 모두 불가

17) 설문조사의 예문은 4장에서 제시한 “na”, “nb”식의 본말인 3음절 “n+ab”가 사용된 문장임.

한 경우를 복수로 응답 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조사는 사전 수록어 중심으로 선정된 2음절 부정형 축약어의 실제사용양상 조사를 통해 사전 수록어와의 일치여부를 분석하고 그것의 대표성분 선택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사결과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구성성분 중 대표구성성분 선택상황, 어법 구조에 따른 대표성분 선택양상 분석 및 사전 수록어와 비교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첫 번째 구성성분 선택(na:가능>불가, nb:가능<불가)

분말 긍정단어 중 첫 번째 구성성분이 선택된 “na”가 가능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두 번째 구성성분이 선택된 “nb”형식이 불가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경우는 총 21개였다. 가능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경우는 “不服氣, 不顧忌, 不可以, 不靈驗, 不滿意, 不幸運, 不願意”가 100%로 가장 높았고 “不和諧”가 53.33%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두 번째 구성성분을 선택한 “nb”가 불가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경우는 “不服氣, 不可以, 不靈驗, 不滿意, 不幸運, 不願意”가 100%로 가장 높았고, “不和諧”가 53.33%로 가장 낮았는데 가능비율이 가장 높은 단어 들은 불가비율도 가장 높았다. 따라서 “na”가 가능하다는 비율이 높고 “nb”가 불가하다는 비율이 높은 단어는 실제언어사용에 있어 분말에서 첫 번째 구성성분을 선택한 “na”형식의 부정형 축약어로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응답조사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첫 번째 구성성분 선택

번호	n	ab	na(첫 번째 구성성분)					nb(두 번째 구성성분)				
			응답횟수		비율(%)		단어	응답횟수		비율(%)		단어
			가능	불가	가능	불가		가능	불가	가능	불가	
1	不	服氣	45	0	100.00	0.00	不服	0	45	0.00	100.00	不氣
2	不	顧忌	45	0	100.00	0.00	不顧	5	40	11.11	88.89	不忌
3	不	可以	45	0	100.00	0.00	不可	0	45	0.00	100.00	不以
4	不	靈驗	45	0	100.00	0.00	不靈	0	45	0.00	100.00	不驗
5	不	滿意	45	0	100.00	0.00	不滿	0	45	0.00	100.00	不意
6	不	幸運	45	0	100.00	0.00	不幸	0	45	0.00	100.00	不運
7	不	願意	45	0	100.00	0.00	不願	0	45	0.00	100.00	不意
8	不	公道	44	1	97.78	2.22	不公	4	41	8.89	91.11	不道
9	不	甘心	43	2	95.56	4.44	不甘	0	45	0.00	100.00	不心
10	不	忍耐	42	3	93.33	6.67	不忍	0	45	0.00	100.00	不耐
11	不	周到	41	4	91.11	8.89	不周	10	35	22.22	77.78	不到
12	不	吉利	40	5	88.89	11.11	不吉	5	40	11.11	88.89	不利
13	不	舍得	40	5	88.89	11.11	不舍	1	44	2.22	97.78	不得
14	不	拘泥	37	8	82.22	17.78	不拘	1	44	2.22	97.78	不泥
15	不	善於	37	8	82.22	17.78	不善	0	45	0.00	100.00	不於
16	不	公平	37	8	82.22	17.78	不公	16	29	35.56	64.44	不平
17	不	振奮	28	17	62.22	37.78	不振	0	45	0.00	100.00	不奮
18	不	爽快	30	15	66.67	33.33	不爽	15	30	33.33	66.67	不快
19	不	必須	26	19	57.78	42.22	不必	6	38	13.33	84.44	不須
20	不	缺乏	26	19	57.78	42.22	不缺	19	26	42.22	57.78	不乏
21	不	和諧	24	21	53.33	46.67	不和	18	27	40.00	60.00	不諧

“na”형식의 부정형 축약어¹⁸⁾

不服氣(不服) 不顧忌(不顧) 不可以(不可) 不靈驗(不靈) 不滿意(不滿)
 不幸運(不幸) 不願意(不願) 不公道(不公) 不甘心(不甘) 不忍耐(不忍)
 不周到(不周) 不吉利(不吉) 不舍得(不舍) 不拘泥(不拘) 不善于(不善)
 不公平(不公) 不振奮(不振) 不爽快(不爽) 不必須(不必) 不缺乏(不缺)
 不和諧(不和)

18) 괄호안의 단어가 본말의 부정형 축약어임. 이하 동일.

나. 두 번째 구성성분 선택(na:가능<불가, nb:가능>불가)

본말 긍정단어 중 두 번째 구성성분이 선택된 “nb”가 가능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첫 번째 구성성분이 선택된 “na”형식이 불가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경우는 총 19개였다. 가능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경우는 “不允許, 不般配, 不平凡, 不方便, 不相同”가 100%로 가장 높았고 “不得力”가 53.33% 가장 낮았다.

그리고 첫 번째 구성성분을 선택된 “na”가 불가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경우는 “不般配, 不平凡, 不相同, 不湊巧, 不理解”가 100%로 가장 높았고, “不腐朽”로 53.33%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nb”가 가능하다는 비율이 높고 “na”가 불가하다는 비율이 높은 단어는 실제 언어사용에 있어 “n+ab”형식의 본말에서 두 번째 구성성분을 선택한 “nb”형식의 부정형 축약어로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응답조사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두 번째 구성성분 선택

번호	n	ab	na(첫 번째 구성성분)					nb(두 번째 구성성분)				
			응답횟수		비율(%)		단어	응답횟수		비율(%)		단어
			가능	불가	가능	불가		가능	불가	가능	불가	
1	不	允許	6	39	13.33	86.67	不允	45	0	100.00	0.00	不許
2	不	般配	0	45	0.00	100.00	不般	45	0	100.00	0.00	不配
3	不	平凡	0	45	0.00	100.00	不平	45	0	100.00	0.00	不凡
4	不	方便	1	44	2.22	97.78	不方	45	0	100.00	0.00	不便
5	不	相同	0	45	0.00	100.00	不相	45	0	100.00	0.00	不同
6	無	可疑	2	43	4.44	95.56	無可	44	1	97.78	2.22	無疑
7	不	吉祥	20	25	44.44	55.56	不吉	43	2	95.56	4.44	不祥
8	不	湊巧	0	45	0.00	100.00	不湊	42	3	93.33	6.67	不巧
9	不	端正	16	29	35.56	64.44	不端	40	6	88.89	13.33	不正
10	不	恰當	13	32	28.89	71.11	不恰	39	6	86.67	13.33	不當
11	不	理解	0	45	0.00	100.00	不理	38	7	84.44	15.56	不解
12	不	合法	1	44	2.22	97.78	不合	37	8	82.22	17.78	不法
13	不	愉快	6	39	13.33	86.67	不愉	37	8	82.22	17.78	不快
14	無	自私	1	44	2.22	97.78	無自	31	14	68.89	31.11	無私

15	無	有效	2	43	4.44	95.56	無有	27	18	60.00	40.00	無效
16	不	時興	1	44	2.22	97.78	不時	27	18	60.00	40.00	不興
17	不	腐朽	21	24	46.67	53.33	不腐	27	18	60.00	40.00	不朽
18	不	慚愧	10	35	22.22	77.78	不慚	27	18	60.00	40.00	不愧
19	不	得力	0	45	0.00	100.00	不得	24	21	53.33	46.67	不力

“nb”형식의 부정형 축약어

不允許(不許) 不般配(不配) 不平凡(不凡) 不方便(不便) 不相同(不同)
 無可疑(無疑) 不吉祥(不祥) 不湊巧(不巧) 不端正(不正) 不恰當(不當)
 不理解(不解) 不合法(不法) 不愉快(不快) 無自私(無私) 無有效(無效)
 不時興(不興) 不腐朽(不朽) 不慚愧(不愧) 不得力(不力)

다. 두 구성성분 모두 선택가능(na:가능>불가, nb:가능>불가)

첫 번째 구성성분을 선택한 “na”, 두 번째 구성성분을 선택한 “nb” 모두 가능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경우는 총3개로 나타났다. 이 중 첫 번째 구성성분을 선택한 “na”가 가능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不妥當(86.67%)”이고, “nb”가 가능하다고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不符合(73.33%)”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렇게 두 구성성분이 모두 선택 가능한 경우는 그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는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하나의 축약어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3> 두 구성성분 모두 선택가능

번호	n	ab	na(첫 번째 구성성분)				단어	nb(두 번째 구성성분)				단어
			응답횟수		비율(%)			응답횟수		비율(%)		
			가능	불가	가능	불가		가능	불가	가능	불가	
1	不	符合	38	7	84.44	15.56	不符	33	12	73.33	26.67	不合
2	不	妥當	39	6	86.67	13.33	不妥	24	21	53.33	46.67	不當
3	不	安定	26	19	57.78	42.22	不安	26	19	57.78	42.22	不定

“na”, “nb” 형식 모두 가능한 부정형 축약어

不符合(不符,不合) 不妥當(不妥,不當) 不安定(不安,不定)

라. 두 구성성분 모두 선택 불가(na:가능<불가, nb:가능<불가)

두 구성성분 모두 선택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 반면 그 반대상황인 첫 번째 구성성분과 두 번째 구성성분 모두 불가하다는 응답한 경우도 있다. 이는 아마도 사전에는 형태상 축약되었고 의미상 본말과 동일한 축약형식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이 書面語적인 성격이 강해 실제언어생활인 口語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축약어 일수도 있다.

<표 4> 두 구성성분 모두 선택불가

번호	n	ab	na(첫 번째 구성성분)				단어	nb(두 번째 구성성분)				단어
			응답횟수		비율(%)			응답횟수		비율(%)		
			가능	불가	가능	불가		가능	불가	가능	불가	
1	不	确切	16	29	35.56	64.44	不确	7	38	15.56	84.44	不切

마. 대표 구성성분 선택양상 분석

앞에서 중국어 축약 구성성분 선택에는 몇 가지 원칙이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의미적 연관성 및 구별성 최적화, 중심어와 첫 번째 음절 우선 선택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축약어의 일반 구성원칙이 부정형 축약어에도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긍정단어의 어법구조를 분석하여 첫 번째 구성성분을 선택하는 경우와 두 번째 구성성분을 선택하는 경우에 대한 통계를 내어 보았다.¹⁹⁾

<표 5> 어법구조에 따른 구성성분 선택 양상

의미구조 구성성분	병렬	수식	술빈	보충	부가 (접두)	부가 (접미)	주술	총계
a	11	4	3	1	0	2	0	21
b	11	3	3	0	1	0	1	19
ab모두가능	3	-	-	-	-	-	-	3

19) 긍정단어의 어법구조분석은 《現代漢語規範用法大詞典》(學園出版社, 1997)을 참조함.

위의 표에서 보면 첫 번째 구성성분이 선택된 경우(21개)가 두 번째 구성성분을 선택한 (19개) 경우보다 그 차이는 크지 않지만 다소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두 구성성분으로 구성된 긍정형 단어의 대표성분은 첫 번째 음절에 있다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어떤 병렬구조, 수식구조, 술빈구조의 긍정형 단어는 이와는 달리 두 번째 구성성분이 선택되었다. 이는 첫 번째 구성성분을 선택하였을 때 “na”가 존재하지 않거나, 한자의 多義性에 의해 “na”가 의미상 본말과 동일하지 않은 同形異義字가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예를 들어 긍정 단어가 병렬구조인 “不理解(이해하지 못하다)”의 “na”인 “不理(무시하다, 방임하다)”는 본말의 의미를 그대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본말의 의미와 동일한 “nb”형식인 “不解”가 선택된 것이다. 그러나 만약 “na”, “nb”형식이 모두 존재하고 의미도 본말과 동일하다면 “不符号(不符号, 不符号), 不妥當(不妥, 不當), 不安定(不安, 不定)”처럼 두 형식 모두 축약어로 사용 될 수 있다.

또한 부가식의 경우에는 원래 접두사(前綴)와 접미사(后綴)는 실질구성성분과 결합되어 단어를 만들어내는 의미가 약화된 구성성분이다. 이를 축약 대표성분으로 선택한다면 어떤 단어를 나타내는지 모호해지기 때문에 실질구성성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대표성분으로 선택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통 긍정단어의 구성성분이 축약성분으로 선택될 때는 먼저 일반적 특징규칙에 영향을 받고 예외가 발생하면 앞에서 언급한 구별성의 최적화를 위해 개별적 특징규칙의 적용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바. 사전 수록어와 설문조사 결과 비교

사전 수록어를 통한 조사를 통해 선정된 부정형 축약어의 실제 사용현

20) 두 번째 구성성분을 선택한 “nb”형식의 부정형 축약어의 본말 중 대부분 “na”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不平凡(병렬), 不理解(병렬), 不合法(술빈), 不時興(수식), 不得力(술빈)”는 “na”가 존재하나 본말의 의미와는 상이하였음. 또한 “na”, “nb” 존재여부는 《現代漢語雙序詞典彙編》(武漢大學出版社, 2003)를 참조하였음.

황 설문조사를 실시 해본 결과 대부분은 일치하였으나 몇 개의 단어는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 a. 사전은 na식이나 설문은 nb식으로 사용 : 不端正
- b. 사전은 nb식이나 설문은 na식으로 사용 : 不公平, 不缺乏
- c. 사전은 na식이나 설문은 na식, nb식 모두 사용 : 不妥當, 不安定
- d. 사전은 na식이나 설문은 na식, nb식 모두 사용불가 : 不确切

위와 같이 불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본 조사에 사용된 “na” 또는 “nb” 형식은 대부분 3음절 “n+ab” 형식을 간략화한 2음절 부정형 축약어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가능하다는 응답비율과 불가하다는 응답비율이 동시에 100%로 나타난 “不服氣(不服), 不可以(不可), 不靈驗(不靈), 不滿意(不滿), 不幸運(不幸), 不願意(不願), 不般配(不配), 不平凡(不凡), 不相同(不同)” 등은 이미 부정형 축약어로 인정을 받아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I.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중국어 부정형 축약어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1. 중국어 어휘의 축약현상을 나타내는 명칭은 “簡縮語”, “略語”, “簡稱”, “縮約語”, “縮略語”, “省語” 등이 있으나 縮略語가 가장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명칭이라 할 수 있다. 축약어는 형식의 간결성과 정보의 함축성, 시대와 지역적 특성 반영, 2음절 단어화, 구별성과 유형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축약어는 형식의 간략성, 의미의 명확성, 사용의 단일성, 사회적 약속성의 원칙에 따라 생성되어지고 축약방식은 구성성분 중 일부분을 추출하여 결합하는 축약결합(緊縮)방식과 한 가지 이상의 구성성분을 탈락시키는

생략(減縮)방식, 공통성분선택요약(數括)방식으로 구성된다.

3. 축약어의 구성성분의 선택과 생략, 통합은 일반적으로 의미적 연관성 및 구별성 최적화의 원칙, 어법기능상 중심어 선택 원칙, 첫 번째 음절 선택 원칙, 동일구성성분 선택 원칙에 적용을 받는다. 의미적 연관성 및 구별성 최적화 원칙은 특수한 언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한 다른 원칙에 우선된다.

4. 부정형 축약어란 3음절 “부정형태소+긍정형 단어” 형식에서 긍정형 단어 중 일부 구성성분을 선택하여 본말과 동일한 부정형태소와 결합하고 2음절로 간략화 되고 의미상 본말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사전에 수록된 부정형 축약어로 간주 될 수 있는 단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첫 번째 구성성분을 선택한 “na”형식이 두 번째 구성성분을 선택한 “nb”형식이 다소 많았다. 또한 “不₁符合(不₁符,不₁合), 不₂妥當(不₂妥,不₂當), 不₃安定(不₃安,不₃定)” 등은 “na”, “nb”형식 모두 사용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부정형 축약어의 구성방법 원칙도 중심어 선택우선 원칙, 첫 번째 음절 선택 원칙 등 일반 축약어와 유사하게 적용되었으나 어떤 경우는 원래 “na”형식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의미상 본말과 동일하지 않아 “nb”형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6. 부정형 축약어로 간주되는 사전 수록어 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대부분의 단어가 대표성분 선택양상이 일치하였으나 “不₁端正, 不₁公平, 不₁缺乏, 不₁确切” 등이 상이하였다. 이러한 상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na” 또는 “nb”형식은 대부분 3음절 “n+ab” 형식을 간략화한 2음절 부정형 축약어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 중 가능하다는 응답비율과 불가하다는 응답비율이 동시에 100%로 나타난 단어들은 이미 부정형 축약어로 인정을 받아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王吉輝 <關於“肯定:否定”反義組>, 《天津師大學報》 第3期, 1991.
- 王吉輝·焦妮娜 <漢語縮略語規範原則(草案)>, 《術語標準化與信息技術》, 2009年 第1期.
- 王魁京·那須雅 主編 《現代漢語縮約語詞典》, 濟魯書社, 1986.
- 袁暉·阮顯忠 主編 《現代漢語縮約語詞典》, 語言出版社, 2002.
- 하민영 《현대한어 축약어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2010.
- 최윤정 《중국어 2음절 합성어의 속성》,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7.
- 趙霞 《縮約語的詞化》, 天津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
- 김애영·김현철·소은희·심소희 역 《현대중국어의이해(漢語漢語)》, 차이나 하우스, 2007.
- 徐通鏘 《語言論—語義型語言的結構原理和研究方法》,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7.
- 田贊宗·肖九根 <漢語縮略語的構成方式及縮略機制>, 《西南師範大學學報》, 第39卷, 2006.
- 周行健·余惠邦·楊興發 主編 《現代漢語規範用法大詞典》, 學園出版社, 1997.
- 劉興策 主編 《現代漢語双序詞典彙編》, 武漢大學出版社, 2003.
- 俞理明 《漢語縮略語研究》, 巴蜀書社, 2005.
- 줄고 《현대중국어 부정형 반의어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논문, 2009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 《現代漢語詞典》, 商務印書館, 2005.

<中文提要>

在《現代漢語詞典》收錄的詞彙中「否定語素+X(肯定單位)」格式，有的被認為一個詞，有的被認為一個短語。筆者對此研究的成果表明，「否定語素+X(肯定單位)」格式是和肯定單位具有反義關係的否定式反義語。而且在《現代漢語詞典》收錄的否定式反義語絕大都是雙音節形式。

因此在現代漢語裏被認為詞或短語的三音節「否定語素+X(肯定單位)」格式，在長期的運用過程中，受到漢語雙音化規律制約，從雙音節肯定單位的構成成分中選取其中一個，並在被選取的構成成分之前形成與原格式相同的否定語素相結合的「否定語素+X」式雙音節詞。本文認為該式雙音節詞與原來三音節「否定語素+X(肯定單位)」結構表義相同，是由三音節原式縮成的雙音節否定型縮略語。

在此為基礎上，對否定型縮略語的組成方式及中心組成成分選取規律進一步展開深入研究，揭示了現代漢語裏否定型縮略語存在的可能性，與此同時通過問卷調查，細致分析在實際語言交際上否定型縮略語使用情況。

通過該研究，希望漢語學習者更容易了解漢語詞彙否定語素組合現象，以及在漢語語言交際上，能夠運用該否定型縮略語更有效的表達漢語否定句式。這也正是本文的主旨所在。

주제어 : 否定, 縮略語, 否定成分, 否定型縮略語, 漢語否定表現, 二音節化